

객실서 누리는 낭만 캠핑... 호텔업계, 이색 프로그램 '풍성'

코로나 확진자 폭증에 호캉스 주목
레스케이프, 글램핑 스위트 패키지
그랜드하얏트서울, 세계 와인 행사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휴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것도 잠시,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어딘가로 떠나는 여행보다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는 도심 속 호캉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울여름 휴가 트렌드 역시 한 곳에 머무르며 편안한 휴식을 보내는 '스테이케이션'이 대세가 될 전망이다.

15일 호텔가는 여행 계획이 사라진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호텔 내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색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먼저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는 스위트 객실에서 글램핑을 체험할 수 있는 '글램핑 스위트' 패키지를 8월 31일까지 선보인다.

'글램핑 스위트' 패키지는 최상급 객



레스케이프 '글램핑 스위트' 패키지 객실 전경.

/조선호텔앤리조트

실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 프라이빗하면서도 럭셔리한 글램핑을 경험할 수 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 객실은 19세기 프랑스 귀족의 저택에서 영감을 받은 프렌치 감성을 바탕으로 응접실 공간과 침실, 미러 장식의 드레스 룸, 욕실과 입구의 게스트 화장실까지 갖췄

다.

넓은 객실 내에는 북유럽 아웃도어 브랜드 노르디스크와 협업해 노르디스크를 대표하는 코튼 텐트인 이든 테크 미니와 라운지 체어, 코튼 캔버스 웨건 등 캠핑 용품이 세팅된다.

해당 패키지는 일~금요일은 150만

원, 토요일은 160만원(10% 세금 별도)으로 이용 가능하며, 프레지덴셜 스위트 객실은 기본 성인 2인 기준으로 투숙 가능하다(6세 미만 직계 자녀 2인까지 동반 투숙 가능).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진행하는 '세계 와인 프로모션'은 와인 미식가들의 눈길을 끈다. 이탈리아,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등 하나의 와인 생산국을 테마로 한 달 동안 해당 국가의 와인을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는 것이다. 이달에는 미국을 테마로 해 유명 와인 생산지인 나파 밸리, 캘리포니아, 오리곤, 러시안 리버 밸리, 소노마 카운티 등의 지역 와인들을 엄선, 호텔의 프리미엄 베이커리 '더 텔리'에서 선보인다.

그랜드하얏트서울이 세심하게 선정한 이번 와인들은 병당 2만1000원(세금 포함)인 캘리포니아산 가성비 와인 롱반부터 와인 전문 앱 비비노의 세계 상위 탑 5%를 기록한 조쉬 카베르네 소비뇽,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식 공식 오찬 와인으로 선정되었던 덕훈와이너

리의 디코이 스파클링 와인까지 개성있는 와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최대 4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더 텔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야외 온천 스파 씨메르를 레몬 콘셉트로 단장한 '썸머 레몬 스파'를 오는 16일 오픈한다.

'썸머 레몬 스파'는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 레몬 향으로 활력을 되찾는 '리바이탈라이징'을 콘셉트로 마련한 야외 온천이다. 레몬 나무 테마와 해운대 전경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경관을 감상 가능하다. 매일 오후 4시에는 생레몬으로 꾸민 씨메르 레몬 베이스도 체험할 수 있다.

레몬 향 가득한 여름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치유 레몬 썸머' 패키지도 출시했다. 해당 패키지 이용객에게는 씨메르·야외 온천스파 올데이 이용 혜택과 함께 아쿠아 바의 시원한 음료를 제공한다.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가격은 디럭스 객실 기준 26만원부터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ool.co.kr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가려움증 유발물질 기전 밝혀

TRPV3 효능제, 중증 이상의 가려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김혜원 교수(사진)팀이 가려움증 유발 물질인 TRPV3 기전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TRPV3의 활성화가 인체 가려움증 유발'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피부과학회지에 게재됐다.

가려움증은 만성 피부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피부 손상으로 세균 감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가려움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9년 기준 44만명에 달했다.

가려움을 느끼는 것은 흔히 '히스타민'이 분비되기 때문인데, 벌레물림이나 알레르기 반응 때 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만으로 많은 가려움증이 호전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히스타민 경로 외의 가려움증의 기전을 찾는 많은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TRP 단백질이란 뉴런, 피부, 심장, 호흡기관, 신장 등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발현된 이온 단백질로서 주로 열감



이나 통증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그중 TRPV3 단백질은 신경보다 피부에 가장 많이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평소 가려움증이 없는 성인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확인했다. TRPV3의 가려움증 발현을 알아보기 위해 TRPV3 효능제와 다른 가려움 물질들(히스타민 포함)을 사용해 가려움 정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TRPV3 효능제가 피부에서 중증 이상의 가려움을 유발했다.

또 TRPV3 효능제에 의한 가려움증이 다른 억제제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와 TRPV3 억제제를 사용했다. 그 결과, 항히스타민제 뿐만 아니라 TRPV3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려움증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TRPV3가 인체 내 가려움증에 관여하며, 히스타민을 포함한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려움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세경 기자

스마트폰에 허리 굽는 학생들

'디지털 통증' 미리 확인해 조기 치료

거북목 등 근골격계 질환 증가
"경직된 몸, 자주 움직여줘야"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가 학생들의 일상을 장악하면서 '디지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잘못된 자세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면서, 거북목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자세를 미리미리 살펴,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자 목, 수그린 어깨 위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0%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10대(30.2%), 20대(25.2%), 유아동(22.9%), 30대(18.9%) 순으로 저연령에서 과의존 위험이 높았다. 상당수 어린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등으로 모바일 기기에 노출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사용 시간이 늘면서 잘못된 자세로 목과 어깨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장시간 온라



학생들이 '디지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힘찬병원

인 학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니터에 고개를 내밀게 되는데 이 때 기울어진 머리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목뼈와 근육은 잔뜩 힘이 들어간다. 이러한 자세가 반복되면 C자형 정상 목뼈는 일자형으로 변형되고 거북이처럼 구부정한 자세가 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장시간 고개를 숙이면서 목뼈의 부담이 늘어나고 목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불균형 상태를 가져온다. 근력이 약한 아이들은 고개를 아래로 숙이면 어깨 통증이나 두통까지 생기기 쉽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몸을 자주 움직여 주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조절하는 등 생활습관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아이의 뒤통 자주 살펴야
아이의 자세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운다던가, 어깨견갑골(날개뼈)이 더 튀어나왔던가, 골반이 평행하지 않고 기울어졌으면 척추측만증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경우 성장이 멈춘 성인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자세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세가 기울어진 것을 방지할 경우 척추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휘어 척추측만증이 생긴다. 척추는 뒤에서 보았을 때는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휘어 있으면 한쪽 어깨가 처지거나 등이 비틀린 모양으로 변한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쿠션을 의자 뒤쪽에 두고 등을 지지해 척추가 휘어지지 않도록 한다. 엉덩이를 등받이 쪽으로 깊숙하게 넣어 허리를 펴고 앉는 것이 좋고 다리를 꼬는 자세는 피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오늘의 날씨

7월 16일 (금)
음력: 6월 7일

수도권 날씨

25~32°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23 | 해질 / 19:53

연천 23/32
동두천 23/32
가평 23/32
파주 23/32
서울 25/32
양평 24/31
인천 25/30
수원 25/31
용인 25/31
평택 24/32

백령도 21/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일동제약, 아이리드비엠에스에 130억 투자

주식 260만 주 인수

일동제약이 신약개발전문회사 아이리드비엠에스에 13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14일 이사회를 열어, 아이리드비엠에스의 주식 260만 주를 인수하고 최종 지분율 약 40%를 확보해 해당 회사를 일동제약의 계열사로 편입

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리드비엠에스는 일동제약 중앙연구소의 사내 벤처팀으로 시작해, 지난해 독립하여 설립된 저분자화합물신약 디스커버리 전문 바이오테크다. 일동제약은 연구원들의 창의력과 오너십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내 벤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리드비엠에스는 설립 후 다수의 신규 후보물질을 도출해내며 10여 개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만큼 우수한 후보물질 도출 능력을 갖고 있으며, 고도의 신약관련 플랫폼 기술과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리드비엠에스의 계열사 편입으로, 일동제약그룹은 신약임상개발전문회사아이디언스, 임상약리컨설팅전문회사애임스바이오사이언스 등과 함께 R&D 전문 계열사 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